

1. 개 요

1. 일시 : 2015년 3월 20일(금) 12:00~15:45

2.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제이드룸

3. 참석자

▣ 발표자 : 타나카 켄슈케, OECD 아시아테스크 팀장

▣ 참석자 : 총 24명(발표자 포함)

KIEP 소속 (7명)

정철, KIEP 아시아태평양실 실장

오윤아,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팀장

곽성일,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정재완,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이재호,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신민금,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신민이, KIEP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위촉 외부전문가 (8명)

김태운,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형중,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번순,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기획홍보실 실장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과장

조대현, 포스코경영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위원

홍석준, 한국동남아 연구소장

외교부 (4명)

정병화,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장
 서정인, 외교부 전 서남아태평양국장
 윤강현, 외교부 주 OECD 대표부 차석대사
 김정혜, 외교부 사무관

주한 대사관(4명)

Mr. Seng Phanna, 캄보디아대사관 First Secretary
 Mr. Prapan DISYATAT, 태국대사관 Minister-Counsellor
 Ms. Achara CHAIYASAN, 태국대사관 First Secretary
 Mr. Iric Cruz Arribas, 필리핀대사관 First Secretary

4. 제목: OECD Economic Outlook on Southeast Asia

II. 주요 논의 사항

* 본 세미나에서는 OECD에서 지난 2014년 말에 발표한 동남아시아 경제전망의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하였음.

1) 발제내용

- ☐ OECD는 ASEAN 10개국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ASEAN 10개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9%를 기록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5.4% 수준이었음.
- OECD의 2015-19년 동남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국가는 CLM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각각 7.1%, 7.6%, 7.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5-19년 인도네시아는 6.0%, 말레이시아는 5.6%, 필리핀은 6.2%, 태국은 4.1%, 베트남은 5.7%, 브루나이는 1.6%, 싱가포르의 3.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저유가로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이며, 유가하락이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임.

□ 비공식부문(Informality)은 동남아시아에서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 관련 법률 및 사법체제(legal and judicial institutions)를 개선해야하며, 2)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3) 관련 조세제도 및 행정을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음.

-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며, 또한 정부의 규제영향력을 감소시킴.
- 또한 비공식부문은 비용이 높고 규모가 제한된 비공식금융부문의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계,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정책당국자들은 동남아시아의 법규와 사법시스템, 재산권 보호 및 계약집행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 진입을 유도해야함.
- 비공식부문 기업들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촉진하고 공식부문으로의 이동(Formalisation)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도입이 비공식부문(Informality)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진다면(예: 중소기업의 수익이 재투자되었을 경우 세금면제) 비공식부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

2) 토론내용

- 본 발표와 관련한 토론내용은 크게 1) 아세안경제공동체(AEC) 2)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경제협력, 3) 동남아시아 경제성장 전망작업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졌음.

1)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관련 논의

-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역할이 향후 동남아시아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심을 갖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ASEAN 역내에서 재화와 서비스, 자본, 노동력 등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심화를 목표로 하며, 2015년 12월 31일 출범할 예정임.
 - 역내 관세철폐, 회원국 간 전문인력 이동 자유화, 인프라와 통신연계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 중임.
 -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경우 현재는 유럽의 EU 수준의 경제통합은 역내 경제격차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아세안 내 상대적으로 저소득국으로 분리되는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으로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더욱 안정적인 성장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성공을 위해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예산 확대, 인력보충 및 역량강화 등이 필요할 것임.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운영예산은 다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해당 사무국에는 200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1990년대와 비슷한 수준임.

2)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

- ☐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각종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의 부정부패가 꼽히고 있는데, 한국 역시 과거 1980년대 전후로 겪은 문제이며 많은 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이들 국가에게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임.
- ☐ 동남아시아는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동남아지역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진출이 부진한 상황임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지역 성장에 따른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음.

3) 발표자의 동남아시아 경제성장 전망작업 관련 고려사항

- ☐ 동남아시아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 및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남아시아의 국민,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역내 중산층들의 향후 행보도 매우 중요할 것임으로 이를 경제성장 전망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은 다양한 측면에서 동남아경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전망작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반영해야함.
- 예를 들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라 전체 동남아 FDI 유입 및 세부 국가별 FDI 유입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동남아시아 경제성장 전망시 공급(supply side)와 수요(demand side)를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국가는 경제성장 전망 시 반영해야 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면 향후 경제성장 전망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관련 분석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